

KIA 유승철 1군 복귀 ... 위기의 불펜에 힘 될까



KIA 타이거즈의 유승철이 위기의 불펜에서 '난세의 영웅'을 꿈꾼다.

KIA의 2022시즌 마운드에는 '옛박자'로 표현할 수 있다. 전반기에는 두 외국인 투수의 부상과 부진

으로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선발진이 마침내 진용을 갖추자마자 불펜에 부상 약재가 발생했다.

장현식에 이어 전상현이 팔꿈치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특히 최근 가장 안정감 있는 페이스를 보여줬던 전상현은 2일 정밀 검진 결과 우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통증으로 3~4주 가량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재검진도 해야 하는 만큼 8월 전상현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위기의 불펜에서 기회를 노리는 이가 있다. 이를 악물고 1군 복귀를 기다렸던 유승철이 그 주인공이다. 유승철은 전상현이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지난 31일 1군에 콜업됐다.

군 전역 후 복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유승철은 시즌 초반에는 승리를 부르는 투수였다. 추격 상황에 출격해 위력적인 직구로 허리 싸움을 하면서 3승을 챙겼다.

하지만 변화구 제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승철의 견고함이 떨어졌고, 5월 27일 SSG전을 끝으로 1군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2군에서도 부진이 길어지면서 유승철은 후반기가 시작되고서야 다시 기회를 얻었다.

유승철은 "이렇게 오래 못 올라올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부진이 길게 갔다. 전반기 마지막에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그때는 1군 형들이 잘하

장현식·전상현 부상에 1군 콜업 초반 매서운 직구로 필승조 역할 변화구 제구 난조로 어려움 직구 살리고·커브도 자신감 찾아

고 있어서 자리가 없었다"며 "1군에 있던 게 너무 그리웠고,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생각을 했다. 경기 올라가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던질 것 같다"고 1군 복귀 소감을 밝혔다.

돌아보면 약점에 신경 쓰다가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유승철은 "2군 내려갔을 때 변화구가 안 됐다. 변화구 하려다 보니 내 장점이던 직구도 없어졌다. 탈레 마가 왔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다 보니까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유승철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봤다.

그는 "슬라이더 스피드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타자들이 직구는 못 건드리는데 슬라이더가 맞아 나갔다. 슬라이더가 맞아 나가는 게 스피드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스피드 차이가 많이 나는 변화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커브가 맞겠다 싶어서 커브와 직구 투피치로 계속 해왔다. 커브에 타자들이 반응하니까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또 "직구만 던져도 상대가 못 쳤는데 그거 내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조금만 컨디션 안 좋고, 불안하다 싶으면 변화구를 던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상대가 변화구 제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들어오니까 부진의 연속이었다"고 돌아봤다.

결국 직구에서 답을 찾는 유승철은 장점에 집중



유승철

하면서 커브를 더해 자신감을 찾았다.

유승철은 "직구 완벽하게 만들고, 직구 제구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다음에 변화구 하나 육신내지

말고 하자고 생각하면서 커브를 던지니까 타자들이 슬라이더에도 나오고, 슬라이더도 더 좋아졌다"며 "시즌 초반처럼 자신 있게 코스 코스 보고 던지겠

다. 스피드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0.476 불방망이 ... KIA 이창진 '7월 MVP' 도전

외야수 나성범·피렐라·채은성

투수 폰트·라미레즈 등 후보 6명

7월 불방망이를 선보인 이창진이 월간 MVP에 도전한다.

KBO가 2일 7월 MVP 후보를 발표했다. KIA 타이거즈의 이창진과 나성범, 삼성 피렐라, LG 채은성 등 4명의 외야수와 SSG 폰트, 한화 라미레즈(이상 투수) 등 6명이 후보가 됐다.

이창진은 7월 16경기에서 30개의 안타(2위)로 0.476이라는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멀티히트 행진도 이어가면서 박찬호와 함께 타이틀세터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이창진은 출루율도 0.492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밟았다.

나성범도 팀의 중심 타자로서 만점 활약을 했다. 찬스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7월 한 달 가장 많은 20타점을 쓸어 담았다. 지난 29일 SSG와의 홈경기에서는 2개의 홈런을 날리며 개인 최다인 7타점도 수확했다.

나성범은 장타율(0.671, 2위)과 출루율(0.458, 5위)을 합친 OPS는 1.129를 기록, 채은성에 근소한 차로 뒤진 2위다.

한편 폰트는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MVP 후보가 됐다.

그는 7월 한 달 총 5경기에 등판해 리그에서 가



이창진

장 많은 33이닝을 소화하며 4승(공동 1위)을 올렸다.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 시즌 승리 1위(13승), 평균자책점 2위(2.07), 탈삼진 3위

(124개), 승률 4위(0.765)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6월 중순 팀에 합류한 라미레즈는 적응을 마치고 7월 4경기에서 0.72의 평균자책점을 찍었다. 비록 1승에 그쳤지만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했다.

피렐라는 삼성의 연패 상황에도 타석에서 고군분투했다. 7월 삼성이 기록한 15개의 홈런 중 40%에 해당하는 6개의 홈런을 책임지면서 홈런 공동 1위, 안타(31개)와 득점(21점)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타점 부문에서는 17타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채은성도 4번 타자답게 5개의 홈런(공동 5위)을 날리며 장타율(0.710) 1위를 찍었다.

장타율과 출루율(0.435·공동 6위)을 합친 OPS도 1.145를 기록, 리그 1위. 3개의 결승타도 날리면서 팀의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최종 점수로 결정된다. 팬 투표는 6일까지 진행되며 MVP는 8일 발표된다.

MVP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주어진다. 또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 무타즈 에사 바시와 은메달리스트 우상혁(왼쪽)이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혁-바시 다시 '점프 대결'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11일 오전 2시에 열려

'스마일 점퍼' 우상혁(국군체육부대)과 무타즈 에사 바시(카타르)의 재대결 일정이 확정됐다.

세계육상연맹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조직위원회는 2일 대회 세부 일정과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다. 남자 높이뛰기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2시 45분에 열린다.

이번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는 총 10명이 출전한다. 지난 7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1~4위에 오른 최정상급 점퍼들이 모두 출전 의사를 밝혔다.

당시 '현역 최고 점퍼' 바시는 2m37을 뛰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마지막까지 바시와 경쟁한 선수는 우상혁이었다. 바시는 2m35를 넘어 한국 육상에 사상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선물했다.

도쿄올림픽에서 바시와 공동 1위를 차지한 장마르크 탬베리(이탈리아)는 2m33의 벽에 막혀 4위에 그쳤다. 안드리 프로첸코(우크라이나)의 기록도 2m33이었지만, 성공 시기에서 앞선 프로첸코가 동메달을 땀다.

3월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5월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우승(2m33), 7월 세계(실외)선수권 2위(2m35) 등 한국 육상 최초의 기록을 작성한 우상혁의 2022년 마지막 목표는 '다이아몬드리그 워너'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는 12개 대회에서 랭킹 포

인트로 순위를 정해 '챔피언십' 격인 13번째 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각 대회 1위는 승점 8을 얻는데, 랭킹 포인트 순위 상위 6명이 9월 8~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파이널 시리즈'에 출전한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에서 파이널 시리즈를 제외하고, 남자 높이뛰기 경기가 열리는 대회는 총 5개다. 이미 3개 대회를 치렀고, 모나코와 로잔(8월 26일)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 경기를 편성했다.

5개 대회 랭킹 포인트를 합산해 파이널 시리즈에 나설 6명을 결정한다.

우상혁은 도하 대회 우승으로 8점을 얻었지만, 버밍엄과 로마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아 랭킹 포인트 순위는 6위다.

로벳과 탬베리가 15점, 노버트 코비엘스키(폴란드)가 13점으로 1~3위, 해리스(12점), 매큐언(9점)이 우상혁보다 많은 포인트를 쌓았다. 우상혁처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에만 출전해 2위를 한 바시는 7점으로 8위다.

다이아몬드리그의 각 대회 우승 상금은 1만달러(약 1300만원), 파이널 시리즈 우승 상금은 3만달러(약 3900만원)다.

파이널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다이아몬드리그 워너' 타이틀과 함께 2023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자동 출전권도 얻는다. 다이아몬드리그 모양의 트로피 또한 손에 넣는다. /연합뉴스

여자 유로 우승한 잉글랜드 여자 축구 선수들 평균 연봉 7500만원 ... EPL 100분의 1 수준

2022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여자 유로)의 여대금 흥행으로 '안방 우승팀' 잉글랜드의 여자 축구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 간 임금 격차도 주목받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일 잉글랜드 남자 대표팀의 주장 해리 케인(토트넘)과 여자 대표팀의 주장 레이 윌리엄슨(아스널 WFC)의 수입을 비교하며 자국 여자 리그 선수들이 마주하는 '우승 이면의 현실'을 되짚었다.

흥행을 주도하며 우승을 이끈 윌리엄슨은 2021~2022시즌 20만파운드(약 3억2000만원) 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수 연봉 추적 사이트 스포트랙에 따르면 케인의 주급이 20만파운드다. 손흥민의 주급도 19만 2000파운드로 파악된다.

BBC 자체 분석에 따르면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 선수 평균 연봉은 4만7000파운드(약 7500만원)이다. EPL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이보다 100배가량 많은 470만파운드(약 75억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EPL과 WSL 소속 선수들이 주축이 된 남녀 잉글랜드 대표팀 중 '가성비'로만 보면 여자 대표팀이 훨씬 훌륭한 성적과 인기를 보여준 셈이다. 남자 대표팀은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서독을 꺾고 우승한 게 마지막이다.

또 런던에서 열린 독일 잉글랜드의 여자 유로 결승전에 입장한 8만7192명은 남녀 유럽선수권대회를 통틀어 역대 최다 관중이다.

이런 임금 격차는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몸담고 있는 구단의 수익 규모 차이에 기인한다.

남녀 팀을 동시 운영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남자 팀은 EPL에서 2020~2021시즌 5억7100만파운드(약 9142억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BBC는 전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이 중 62%가 선수 임금으로 빠져나갔다.

반면 같은 기간 여자팀은 WSL에서 290만파운드(약 46억원) 수익을 올렸지만, 선수 임금으로 이보다 많은 330만파운드(약 53억원)를 써야 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에 따르면 EPL 경기에는 매 경기 평균 3만9000명이 입장하지만, WSL 경기에는 2000명 미만의 관중만 들어온다.

딜로이트는 이런 관중 수익도 남자팀의 전체 수익에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한다. 나머지 85%는 뒤늦게 출범한 여자 프로리그가 누리기가 어려운 TV 중계권과 후원사를 통한 수익이다.

BBC는 이번 여자 유로의 흥행이 이런 구조적 격차를 좁힐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